

지역 소식 통

정읍시, 휠체어 무료

정비 · 세척 서비스 실시

정읍시 보건소가 휠체어 사용 장애인에 대한 안전하고 쾌적한 이동 환경 조성을 위해 '휠체어 무료 정비 및 세척 서비스' 참여자를 모집한다.

이번 서비스는 4월 10일 상동 에 위치한 샘골보건지소에서 진행된다. 전북특별자치도 보조기기센터의 보조기기 전문가와 협력해 정비 및 세척은 물론, 개별 맞춤형 상담과 최신 보조기기 전시·체험 프로그램까지 함께 운영될 예정이다.

정읍시에 거주하는 휠체어 사용자 누구나 가능하며, 접수 기간은 오는 3월 31일까지다.

이번 서비스는 단순한 세척을 넘어 휠체어 상태를 점검하고 불편사항을 상담, 실제 사용자의 생활에 맞춘 보조기기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장애인의 이동권과 삶의 질을 실질적으로 높이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시 보건소 관계자는 "휠체어는 이동이 불편한 장애인의 필수 이동 수단인 만큼 정기적인 점검과 관리가 매우 중요하다"고 전했다. /정읍=김대환 기자

부안군, 2025년 제1회

안전관리위원회 개최

부안군(군수 권익현)은 지난 21일 부안군청 3층 회의실에서 2025년 제1회 안전관리위원회를 개최했다.

이번 안전관리위원회는 위원장인 권익현 부안군수 주재로 군, 경, 소방 농어촌공사, 한국전력공사, 대한적십자사 등 8개 지역 재난관리책임기관에서 총 11명이 참석했다.

위원회에서는 2025년 안전관리계획(안), 제7회 개암동벚꽃축제 안전관리계획안, 부안군 집중안전점검 점검대상 선정(안)에 대해 심의 의결했다.

2025년 안전관리계획은 재난 및 안전사고로부터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법정 의무계획으로 군 안전관리체계, 재난관리역량 강화 방안, 자연재난?사회재난을 포함한 총 3개 분야 41개 유형의 세부 대책을 중심으로 종합적인 안전사고 관리대책을 담고 있다.

/부안=김석진 기자

'고창청보리밭 축제' 4월19일 개막

고창 공음면 학원관광농원 일원서 5월11일까지... 다채로운 프로그램 구성

고창군이 오는 4월19일부터 5월11일까지 '제22회 고창청보리밭 축제'를 개최한다고 24일 밝혔다.

고창군 공음면 학원관광농원 일원에서 펼쳐질 이번 축제를 위해, 안전한 축제장 조성과 다채로운 프로그램 구성으로 봄나들이 관광객을 맞이할 준비에 한창이다.

올해로 22회를 맞는 고창 청보리밭 축제는 '드라마 같은 풍경, 영화 같은 하루'를 주제로 정했다. 실제 고창 청보리밭에서 촬영된 드라마와 영화 속 장면을 재현한 포토존을 설치해 방문객들에게 영화·드라마 속 장면에서 있는 듯한 경험을 선사할 예정이다.

안전하고 깨끗한 축제장 조성을 위해 공중화장실, 데크길, 주행사장, 이



전, 편의시설 등을 정비중이다. 여성 관광객을 위해 여성 전용 임시화장실 운영을 확충하고 안내관, 고사목 정비 등 주변 환경정비를 병행한다.

먹거리 안전도 빼놓을 수 없다. 소비자 식품 위생감시원을 통해 축제장 내 음식점 위생점검에 철저를 기한다. 바가지요금 신고센터 운영과 식사료 및

판매품목에 대한 가격 표시제를 시행, 축제장 내 물가인정을 도모하는 등 이 용객 만족도를 끌어올릴 방침이다.

심덕섭 고창군수는 "관광객과 군민이 함께하고 그 속에서 경제적 선순환이 이루어질 때 축제의 발전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고창=김영식 기자

"2026년 국가예산 부처 단계 반영 최선"

권익현 부안군수, 연석회의서 강조...착한 선구매 · 선결제 캠페인 적극 주문

권익현 부안군수가 2026년 국가예산 확보를 위해 부처 단계부터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주문했다.

권익현 군수는 24일 열린 3월 중 연석회의에서 "정부의 건축?건설재정 등 어려운 여건에 직면해 있지만 지역소멸 극복과 새로운 성장동력 확보를 위해서 국가예산 확보는 반드시 필요한 과제"라며 "관과소에서는 부처 지출한도 통보 이전인 오는 4월 중순까지 신규사업 추가 발굴 노력을 지속해 달라"고 당부했다.

특히 "발굴된 신규사업 및 계속사업에 대해서는 전북특별자치도 중점사



업 선정과 부처 단계에서 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사업별 당위성과 완성도를 높이고 부처 방문 등 전방위적 국가예산 확보에 총력을 기울여 달라"고 강조했다.

권익현 군수는 또 "정부가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의 경영부담 완화와 지역 내 소비 촉진을 목표로 착한 선구매·선결제 캠페인을 추진하고 있다"며 "소비심리 회복이 더딘 상황에서 지방재정이 지역경제 활성화의 마중물이 될 수 있도록 각종 업무 추진 시 필요한 물품을 선구매하고 식비도 미리 계산하는 착한 선구매·선결제 캠페인을 적극 실천해 달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권익현 군수는 "최근 날씨가 풀리면서 도로정비, 건축공사 등 각종 공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며 고 밝혔다.

/부안=김석진 기자

고창군, '기업하기 좋은 전북 만들기 평가' 최우수 선정

도기업지원 우수 시 · 군 평가서 2년 연속 1위 대입

고창군이 전북특별자치도 '기업하기 좋은 전북 만들기' 평가에서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됐다. 2년 연속 '기업지원 우수시군' 평가 1위의 대입이다.

24일 고창군에 따르면 전북자치도의 2024년 기업하기 좋은 전북 만들기 평가에서 고창군이 1위를 차지했다. 작년에 이어 2년 연속 최우수 선정이다. 도지사 표창과 함께 관련 인센티브를 받는다.

고창군은 '기업 1공무원 전담제' 운영으로 기업 어려움 해소율이 91%에

달했다. 특히 기업의 중추 신고 허가 지원을 신속히 해결해 연간 50억원의 매출 증가 효과를 기대할 수 있게 됐다.

그럼자규제(법적근거가 없는 보이지 않는 규제) 16건을 발굴하고, 국토교통부 주관 신활력사업단지 일자리 연계형 주택공모 사업을 따내며 국가예산 410억원을 확보하는 성과를 거뒀다.

또한 관내 농공단지 분기별 간담회 등을 통해 기업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이를 해소하기 위한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 왔다. 동시에 기업 매출 증대를 위해 중소기업 제품을 우선 구매에도 적극 노력해 왔다.

이밖에도 중소기업의 긴급자금 지원 확대를 통한 경영안정 추진을 위한 이차보전금 지원, 환경개선사업, 물류비 지원사업, 농공단지 환경정비 등 다양한 지원방안을 마련해 추진하고 있다.

특히 기관장 관심도에서도 높은 점수를 받았다. 심덕섭 고창군수는 취임 직후 'BSG 기업유치'를 핵심목표로 제시했다.

/고창=김영식 기자



일본 시만토정과 스포츠 교류

고창군, 제17회 시만토강 사쿠라 마라톤 대회 민 · 관 함께 참가

고창군이 지난 23일 국제 우호도시인 일본 고치현(高知県) 시만토정(四万十町)에서 개최된 '제17회 시만토강 사쿠라 마라톤 대회'에 참가해 양 도시간 우호를 다졌다.

이번 방문은 일본 시만토정 초청으로 이뤄졌으며, 조민규 고창군의회 의장, 이영운 고창군 기획예산실장, 오철환 고창군 체육회장, 마라톤 동호회 회원 등 12명이 함께했다.

고창군과 일본 시만토정은 2012년부터 국제 우호협약을 체결 이후 상호 대표축제 방문, 관광지 연계 홍보 청

소년 외교관 활동 교육 국제교류 등 다양한 분야에 걸쳐 활발한 교류협력을 이어오고 있다.

고창군 대표단은 나카오 히로노리 정장의 따뜻한 환대와 함께 시만토정 청사 및 의회를 방문해 심도 있는 교류사업을 협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또한 시만토정 스포츠클럽을 방문해 스포츠클럽 회원과 고창군 체육회 간에 각국의 마라톤 대회 운영 경험을 공유하는 등 스포츠 분야의 우호교류 발전 방안을 논의했다.

/고창=김영식기자

정읍시, 구제역 유입 차단 총력... 긴급 백신 접종

정읍시는 최근 전라남도 영암과 무안 지역에서 구제역이 14건 잇따라 발생함에 따라, 지역 내 유입을 차단하고자 긴급 백신 접종과 24시간 방역체계 가동 등 총력 대응에 나섰다.

시는 당초 4월 1일부터 계획했던 구제역 백신 일제접종을 2주 앞당겨 지난 14일부터 긴급하게 시작했다. 접종 대상은 소 1714농가 10만 1230두, 염소 102농가 9743두 등 총 11만 1033두다.

접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해 공수 의사 등 수의사 8명과 염소 보정장 14명 등 총 22명으로 구성된 접종지원반을 편성해 3월 31일까지 모든 사육농가를 대상으로 접종을 완료할 계획이

다.

소규모 농가(소 50두 이하, 염소 300두 이하)에는 백신을 무상으로 공급하고 접종도 지원하며, 전업 규모 이상 농가에는 백신 구입 비용의 50%를 보조해 농가 부담을 줄였다.

또한 시는 방역차량 13대를 총동원해 축산농가 주변 도로와 접경지역 주요 도로에 대한 집중 소독을 매일 실시하고 있으며, 용계동 거점소독 세척 시설은 24시간 상시 운영 중이다. 방역대책 상황실도 24시간 체제로 운영해 비상상황 발생 시 신속히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유지하고 있다.

/정읍=김대환 기자

정읍시보건소, 어린이집 '손 씻기 체험 뷰 박스' 대여

정읍시보건소가 감염병 예방을 위한 올바른 손 씻기 습관 형성을 위해 관내 어린이를 대상으로 '손 씻기 체험 뷰 박스' 무상 대여 사업을 본격 운영하고 있다.

이번 사업은 초등학교, 유치원, 어린이집, 지역아동센터 등 단체생활을 하는 어린이 기관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손 씻기 체험 뷰 박스'는 손에 세균을 모사한 형광표시를 바른 후 평소 습관대로 손을 씻고, 자외선 조령 아래 남아 있는 형광물질을 통해 얼마나 제대로 씻었는지를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교육구구다. 이를 통해 손 씻기의 중요성과 정확한 방법을 직접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시 보건소는 감염병 예방의 기본이자 가장 효과적인 수단이 '올바른 손 씻기'라는 점에 착안해 감염에 취약한 어린이들이 어릴 때부터 바른 위생 습관을 익힐 수 있도록 이 사업을 마련했다.

감염병은 손 씻기만 잘해도 50% 이상 예방이 가능하다는 연구 결과가 있는 만큼, 실질적인 예방 효과를 줄 것으로 기대된다.

/정읍=김대환 기자

전주매일 아동학대 예방 캠페인

착한신고

112

"신고하는 당신이 영웅입니다"

아동학대 범죄를 알거나 의심만 되어도 신고하여야 하며 신고하지 않은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아동학대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을 말한다.

아동이나 학대행위자의 정보를 파악하지 못해도 신고는 가능하며, 가능한 많은 정보를 제공하도록 한다.

전화: 국번없이 112
방문: 관할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

아동학대 행동적징후

- 어른과의 접촉회피
- 다른 아동이 울 때 공포를 나타냄
- 공격적이거나 위축된 극단적 행동
- 부모에 대한 두려움
- 집에 가는 것을 두려워함
- 위험에 대한 지속적 경계